

판화가 오윤의 삶과 예술을 응시하다

광주 출신 배종민 박사 10여년 연구 ‘오윤, 얼굴을 응시하다’ 펴내
올해 40주기 “민중미술 상징인 그의 판화는 망자와 산자 간의 감응”

한겨울에 보는 작품 ‘봄의 소리’는 반갑다. 봄이 멀지 않았음을 환기하는데 새 한마리가 매마른 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불그스름한 움이 트는 나뭇가지마다 다가올 봄에 대한 기대가 감돈다. 추운 겨울이 점차 물러가고 새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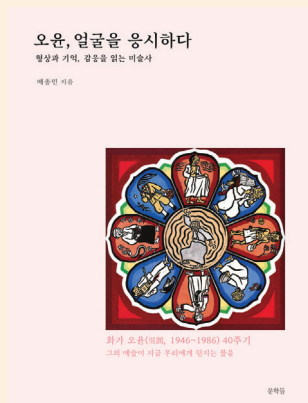
그의 판화는 1980년대 시집이나 소설집 표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판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아니 큰 관심이 없는 이들도 출판물 등에서 한번쯤은 봤을 것도 같다. 그는 한국 민중미술운동의 상징적인 작가로 80년대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현실동인’을 비롯해 ‘현실과 발언’ 등 민중미술 단체 창립에 참여했다. 한마디로 그는 민중미술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명이었다.

바로 오윤 작가(1946~1986)다. 올해는 오윤 작가가 세상을 떠난지 40주기가 되는 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예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엮어낸 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최근 오윤의 삶과 작품을 깊이있게 조망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출신 배종민 박사가 펴낸 ‘오윤, 얼굴을 응시하다’ (문학들)가 그것.

저자는 전남대 국사교육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2005년 ‘조선 초기 도화기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 현대미술사와 민중미술운동을 연구하며 80년대 민중미술을 모티브로 윤리적 실천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책을 펴내게 된 데 대해 “1980년대를 애도의 권리를 둘러싼 시대로 이해한다”며 “애도가 없는 사회



와 삶은 위대롭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이 땅은 술한 죽음을 겪었지만, 국가 권력은 그 무고한 죽음을 자유롭게 애도하거나 추모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애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곡하며 때로는 폭력으로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오윤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것을 넘어 이 시대에 왜 애도가 필요한지 조명하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 “만약 애도의 권리가 있었다면 5·18 광주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에서 책의 지향점이 읽혔다.

배 작가는 10년이 넘는 시간 오윤 작가에 몰두했다. 무엇보다 오윤의 작품, 다시 말해 ‘얼굴’을 오래도록 응시하며 의미와 사회적 자장, 맥락 등과 관련해 깊이있게 전작해왔다.

“질문하고, 다시 보고, 다시 질문하며 쓰기 시작한 글”이라며 “오윤의 작품에 투영된 ‘말하지 않는 그림’, ‘침묵하는 선’, ‘죽음을 죽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읽어내려 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사실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책은 독자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문장 등을 고치고 가독성을 고려해 손을 봤다. 딱딱하고 정지한 정보 위주보다 일반 독자들을 고려한 방식의 글쓰기를 염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오윤의 예술세계를 ‘탈·해골·도깨비·칼노래·귀환하는 인간’이라는 도상 계보와 감응의 윤리라는 관점으로 풀어냈다.

그는 “도상으로, 윤리로, 조형 언어로 해독하려 했다”며 “그림은 조용했고, 말은 늦었으며, 선은 진실을 향해 침묵 속에서 나아갔다”고 밝혔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오윤 예술의 형성과 전



‘봄의 소리’

환을 다루며 2부는 70~80년대 사회적 맥락에 토대를 두고 오윤의 창작활동을 들여다본다. 대표작을 모티브로 오윤의 미술에 투영된 키워드를 고찰하는 내용도 있다. 3부는 죽음과 기억, 침묵과 응시가 구현되는 방식과 의미에 초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4부는 귀환과 해원, 신명을 지향하는 감응의 구조에 바탕을 두고 글쓰기를 전개했다.

배 박사는 “오윤은 애도 불가능성의 현실을 전복하기 위해 얼굴을 응시하고 판화로 새겼다”며 “눈을 감은 얼굴, 고개를 숙인 얼굴, 뒤돌아보는 얼굴, 침묵 속에서 우리를 응시하는 얼굴은 모두 산 자에게 ‘응답하라’는 애도의 요청이었다”고 작가의 작품에 투영된 의미와 역사적, 시대적 현실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도는 단순히 타인을 기리는 일이 아니라, 그 상 앞에서 나 자신 또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일깨우는 사건”이라며 “오윤은 애도의 요청에 감응으로 응답한 ‘관세음 작가’였다”고 오윤의 작가로서의 존재 의미를 풀어냈다.

한편 배 박사는 ‘5·18 항쟁의 예술적 형상화’를 펴냈으며 공저로 ‘5·18 그리고 역사’, ‘민주장정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사: 문화예술운동’, ‘오월_1980년대 광주 민중미술’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과 영화의 사이 읽고 보고 토론하다



피터 웨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스틸컷.

20세기소설영화독본, 프로그램 공개 상반기 첫 작품, 21일 '전쟁과 평화'

소설과 영화는 모두 허구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 허구는 종종 현실보다 더 날카롭게 삶의 본질을 비춘다. 책장을 넘기고 스크린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따라가며 미처 살아보지 못한 선택과 감정,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원작 소설을 읽고 이를 영화로 감상한 뒤 토론하는 인문학 모임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2026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지난 2009년 1월 첫 모임 이후 18년간 이어져온 ‘20세기소설영화독본’ (대표 조대영)은 소설과 영화를 함께 비교·감상하며 작품의 주제와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인문학모임이다. 모임은 오는 21일부터 격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광주극장 뒤편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참석 희망자는 미리 책을 읽고 영화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상반기 첫 작품은 21일에 만나는 ‘전쟁과 평화’다. 톨스토이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전쟁이 개인의 삶과 관계, 윤리에 어떤 균열을 남기는지를 집요하게 따라간다. 킵비터 감독의 1956년작 영화는 방대한 원작의 서사를 주요 인물 중심으로 압축해 전쟁과 일상의 대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대규모 전투 장면과 개인의 감정선을 병치하며 원작의 문제의식을 영상 언어로 옮겼다.

2월 4일에는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소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이를 영화화한 피터 웨버 감독의 2004년작을 만난다. 소설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출발해 이름 없는 소녀를 화폭 속 인물로 상상하며 예술가와 모델 사이의 미묘한 긴장과 감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계급과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 시선과 욕망이 절제된 문제로 펼쳐진다. 영화는 빛과 색채, 정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회화적 분위기를 강조했다.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과 이를 영화화한 제인 캠피온 감독의 1997년작은 3월 4일 상영된다. 원작은 자유롭게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여성 이사벨 아처의 선택과 그 결과를 따라가며,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영화는 인물의 내면을 따라가며 욕망과 억압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절제된 연출로 담아냈다.

이밖에 ‘도플갱어/에너미’ (3월 19일), ‘펠리칸 브리프’ (4월 1일), ‘파과’ (4월 15일), ‘그리스인 조르바’ (4월 29일), ‘말겨진 소녀 / 말없는 소녀’ (5월 6일), ‘해져 2만리’ (5월 20일), ‘화이트 노이즈’ (6월 6일), ‘드라큘라’ (6월 17일), ‘구베씨의 행복여행’ (7월 1일), ‘햄릿’ (7월 15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인 캠피온 '여인의 초상' 스틸컷.

한국창작수필작가회 동인지 제12집 ‘이것저것 놀이’ 발간

한국창작수필작가회(이사장 오덕렬)가 발행하는 동인지 제12집 ‘이것저것 놀이’ (풍백미디어)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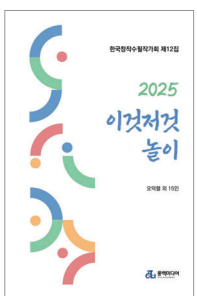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하현규 작가 추모’ 관련 글과 사진이 수록됐다. 하 작가는 조선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근무했다. 생오씨 문예창작반을 수료했으며 제1회 ‘산문의 시’로 제1회 문학에세이로 등단했다. 책에는 하 작가의 대표작 ‘적벽강은 흐른다’ 등을 비롯해 오덕렬 이사장의 조사(弔辭), 김광렬 작가의 추모시 ‘고구마 순’ 등이 실렸다.

동인 작가들의 개성적이면서도 맛깔스러운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김창승 ‘홀로 되는 시간’ 외4편, 김광렬 ‘도라지꽃’ 외 4편, 최광식 ‘나의 유년 시절’ 외 4편, 박옥주 ‘발자국 소리’ 외 2편, 안순례 ‘석류나무’ 외 4편, 윤옥현 ‘꽃꽃 찬가’ 외 1편, 송영문 ‘별, 스피커, 그리고 어머니’ 외 4편이 게재됐다.

오덕렬, 배양미, 최효순, 이병열, 김미환, 김은송, 송영라, 강선희, 권병렬작가의 글들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오덕렬 이사장은 “‘창작수필’은 시어도 허구적 이야기로 아닌 ‘사물의 마음’의 이야기, 즉 사물과의 교감의 상상력 세계를 창작하는 문학’이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웹툰·애니메이션 스타 작가, 순천에서 탄생할까

‘스튜디오 순천’ 스쿨 입교식…지역기반 콘텐츠 인재 양성 교육

국내 웹툰 시장이 2조원대 규모로 성장하며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수많은 청년들이 ‘스타 작가’를 꿈꾸지만, 이야기를 만들고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지난 5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스튜디오 순천’ 웹툰·애니메이션 스쿨 입교식을 열고, 지역 기반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본격 시작했다.

‘스튜디오 순천’은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예비 창작자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실무형 아카데미다.

지역에 자리한 콘텐츠 기업들이 교육 설계부터 강의, 멘토링까지 직접 참여해 산업 현장과 맞닿은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웹툰·애니메이션 교육은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웹툰 스쿨은 순천글로벌웹툰허브센터에서, 애니메이션 스쿨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된다.

웹툰 교육에는 콘텐츠 기업 ㈜케나즈가 참여한다. 콘티 구성과 작화, 기획 등 웹툰 제작의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부터 실제 플랫폼 데뷔를 염두에 둔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개별 작업을 중심으로 멘토링과 피드백이 이어지며, 창작자가 자신의 세계를 밀도 있게 다듬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애니메이션 스쿨은 순천에 입주한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중심



순천 글로벌 웹툰 허브 센터 전경.

〈순천시 제공〉

이 된다. 제작 공정을 기준으로 프리프로덕션과 프로덕션 과정으로 나뉘어 교육이 이뤄지며, 수업 이후에는 기업과 교육생을 연결해 실제 제작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박영준 케나즈 부대표는 “이 과정은 이론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창작자들이 겪는 고민을 함께 풀어가며 실질적인 경험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